

로 생각되는 이들 蓋瓦에는 草花文系の 무늬가 들어있다고 하며, 이것들은 現地에서 高麗時代遺品으로 報道되었다.

I 第六卷 第三、四號 通卷五十六・五十七號

高麗 帝王韻紀(上下二卷)에 대하여

金 庠 基



影近先生俊思洪濟然

勳安居士 李承休 先生(高宗十一年— 忠烈王二十六年— 二二四—二三〇) 撰 帝王韻紀는 現傳된 高麗人의 撰述로서 三國史記 三國遺事와 아울러 우리古史의 三大寶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帝王韻紀는 上下二

卷으로 되었는바 上卷은 中國의 歷史를 七言詩로 下卷은 本國의 歷史를 二部로 나누어 上古의 것은 七言詩로 本朝(高麗)의 것은 五言詩로 역고 撰者의 自註를 加한 것이다. 特히 下卷에 실린 本國에 關한 記事中에는 注目할만한 것이 적지 아니하나 그 가운데에도 擘頭로 檀君을 읊은條 項에

今孫女(檀桓)雄天王的孫女) 飲藥成人身與檀樹神婚 而生男名檀君云云

이라 自註하였는데 이는 本書와 거의 同時代에 된 然(二二〇六一—二八二)의 三國遺事에 보이는 檀君說話의 『桓雄이 德女를 人間으로 化身시켜 그와 혼인하여 檀君을 낳았다』는 說과 相異한 것으로 매우 注目할 만한 바이며 世宗寶錄 地理志(平壤條)에도 이 帝王韻紀의 說을 取한 것으로 보면 古來로 이 說이 三國遺事의 說보다 普遍的으로 行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同時에 여기에는 聖母天降思想과 樹木崇拜思想이 反映되어 있어 우리나라 開國說話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되는 것이다.

이 帝王韻紀는 前後 三次에 걸쳐 刊行되었는바 初刊은 先生의 在世時인 忠烈王二十一年間(二二五・六)에 尹瑋 鄭瑄 등이 勅命을 받들어 晉州에서 開板하였으며 再刊은 恭愍王九年(二三六)에 先生의 姪婿인 安克仁和 金禧 등이 慶州에서 雕板하였고 三刊은 朝鮮太宗十七年(一四一七)에 李承幹 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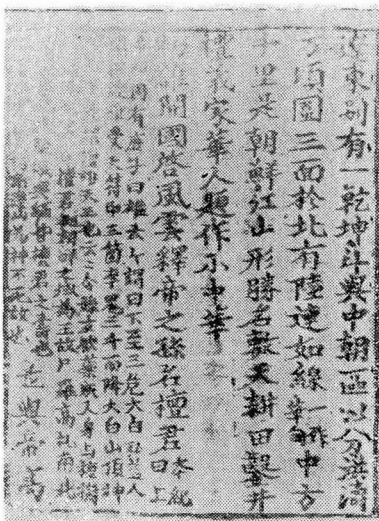
泳 등이 또한 慶州에서 改雕하였다. 이

가운데에 三刊本은 現在 拙架를 비롯하여 一、三處에 保藏

되어 있으며 또 解放前에 影印까지 되어

있으나 이 밖에 初刊本은 말할 것도 없고

- 略 歷
- 一九〇五、三、六 忠南舒川郡韓山面芝峴里에서 出生.
  - 一九二三、四—一九二六、三 京城私立中東學校特科三年卒業
  - 一九二七、一〇—二八、三 京城禮明學校敎員
  - 一九二八、九—二九、一二 京城私立養賢女學校敎員
  - 一九三三、七—四五、八 扶餘郡勤務(古蹟保存事務擔當)
  - 一九四五、九—六一、三 國立博物館扶餘分館長
  - 一九六一、三—六三、三 慶州分館長
  - 一九六三、三—現在 同 扶餘分館長
- 現住所 忠南扶餘郡扶餘邑 扶餘博物館長舍宅



再刊本도 아직까지 그所在가 잘 알려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다  
행이도 再刊本이 松隱 李秉直氏에게 珍藏되어 있어 昨年末에 文化財委  
員會에서 그것을 寶物로 指定케 되었다. 世間에는 凡常한 高麗本도 거의  
湮佚되어 當年の 影子를 찾아보기 힘든 지금에 있어 國史의 寶典인 本  
書의 高麗刊本이 出現된 것이야말로 斯界의 慶幸事가 아닐 수 없다.

本書의 板式은 每半葉 八行(小字 即註는 雙行)·行 十六字(小字는 行  
에 따라 二十一—三字로 高루지 못함)·四周 單欄이요 版心에는 葉을 따  
라 雙魚尾 或은 線口·書名으로 韻紀上 또는 下·葉數等이 새겨져 있다.  
表紙는 縱이 二八·八cm 橫이 一七·五cm며 板匡은 縱이 一九·二cm 橫  
이 一四·五cm인데 可惜하게도 下卷 十八葉가운데에서 六·七·八·十  
六·十八葉 等이 缺落되었다.(上卷은 全十八葉完) 그러나 三刊本이 몇  
곳에 健在함으로 그 缺落은 補足할 수가 있는 것이다.

## 公州 石壯里 無土器文化

孫 寶 基

홍수가 스쳐간 금강 유역의 장엄덕 밑 한 옹덩이를 중심으로 四개의  
打製石器와 一〇여개의 石器破片을 주는 것은 당시 延世大學校에 客員  
學者로 와있던 알버트·머저(Albert Mohr)라 그의 처 앨·앤·셀을  
(L.L. Sample)이었다. 그들의 이 귀중한 발견은筆者에게 제시하고 발을  
을 제의해 왔다.(一九六四年 五月 二〇일) 당시 延世大學校 大學院 史學  
科에서는 일제기 發掘計劃을 세우고 發掘對象地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筆者는 모어씨와 五月 二十七일의 그곳(公州郡 長岐面 石壯里)를 다시  
찾아 그 옹덩이에서 數個의 破片과 約 一五cm나 되는 파랑개비형의 『브  
레이드』를 찾아 내었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우리 延世大에서  
發掘할 것을 決定하고 發掘許可申請을 내었다. 延世大에서 발굴을 하  
게 된 것은 약 六個月이 지난 十一月 十一일부터이었다. 《연세춘추》一九六

第六卷 第三·四號 通卷五十六·五十七號

四년十二月七일 三  
八〇호(三面참조)

十一月부터 二十

九일에 걸친 발굴에  
서出土된 유물을 地  
層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表土層……李朝磁器

破片 二점

第一粘土層……植物

腐蝕土 直徑 約 一

〇cm

第二粘土層

第一石層

第三粘土層……甕土

約 2m x 1m

第二石層……斑岩石

器破片

第四粘土層……石

英·礫石 Hand Axe 斑岩 Hand Axe 斑岩 Chopping

tool 礫石 Pestle 斑岩玢岩石器破片

木炭層

第五粘土層……礫石 Pestle 玢長岩 Micro-Blade 玢質角岩 Scraper 石英

Burin, Hand Axe, Chopper, Chopping tool, Pointed

tool, Scraper.

第三石層

第六粘土層……第五粘土層石器와 같은 種類의 石英大形石器

이 같은 分布를 各地層에서 볼수 있었는데는 斑岩 玢岩系의 石器가 木炭

